

존 오스왈트 박사, 호세아, 세션 12, 호세아 13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비디오를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필사를 허가한 Francis Asbury Society(켄터키주 윌모어)와 Oswalt 박사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밤 여기서 여러분 각자를 만나서 반가워요. 와줘서 고마워. 우리는 이 책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인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진리도 없고 신실함도 없다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4장, 5장, 6장에서 주님에 대한 지식을 보지 못했고, 6장부터 10장, 11장에서도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지 못했으며, 이제는 주님을 향한 신실함도 보지 못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자 사람들은 떨어졌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높임을 받았으나 바알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여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은으로 정교하게 만든 형상으로 자기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장인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 제물을 바친다고 합니다.

그들은 송아지 우상에게 키스합니다. 첫 부분인 1절은 에브라임이 한때 가졌던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구절에 따르면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은 우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에게로 향했고, 바알은 무엇보다도 폭풍의 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이스라엘에는 관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프라테스나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모든 것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폭풍에 달려 있으며, 폭풍이 중앙 능선에 도달하여 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폭풍의 신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를 당신의 구석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 1절과 2절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이전과 이후. 정확히. 그리고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왜 이후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자 사람들은 떨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과 나머지 구절 사이의 연관성은 무엇입니까? 자부심. 아, 나에겐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합니다.

나는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력한 사람도 많지 않고, 고귀한 사람도 많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왜 안 돼?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계속해서 우리가 실패한 순간, 삶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말했듯이 참호에는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들은 우리와 달리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브라운 박사님이 대학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 설교하신 것을 언급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단지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나는 잘 지내고 있다. 교회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까?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몇 년 전에 나는 작은 조각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자기네 교수가 한때는 매우 열렬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열렬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어떻게 믿음을 잃었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정말로 그것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갔을 때 그 사람을 위한

시간도 별로 없고 별로 필요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고 서랍 속에만 넣어두었다고 하더군요.

몇 년이 지난 뒤, 어쩌면 조금은 믿음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서랍으로 가서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맙소사,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게 만드는 것은 비극이자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면에서 이 구절이 매우 강력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높아지자 그들은 돌아섰고, 성경은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상, 즉 우상신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손으로 만든 작품이고, 그 이상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마음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미지만 구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구성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시 그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종교인 바알 숭배에 빠져 죽었습니다.

뭐? 거기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는가? 예. 자, 왜요? 이것이 왜 죽음으로 이어지는가? 바알은 생명을 줄 수 없었습니다. 바알은 그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좀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왜 안 돼? 글썄요, 그 사람은 신이 아니죠, 그렇죠. 왜 우리 손의 일과 우리 마음의 일이 생명으로 이어지지 못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또 뭐야? 알았어, 알았어. 또 뭐야? 알았어, 알았어. 생명의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 일부는 그럴 것입니다.

내 생각엔 만약 예수께서 지금으로부터 100년을 지체하신다면 세상은 복수심으로 이 목소리를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인류의 타락한 본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것에는 치명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공산주의는 매우 우아한 정치이론이다. 그것은 온갖 의미가 있고 그것이 신흥 국가들이 계속 그것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즉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간과합니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며 우리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평등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쇠퇴하는 대신 선택된 소수의 손에 의해 전능해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방치하면 우리는 죽음을 낳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사람들은 계속 부정하지만, 세대를 거듭할수록 또 다시 증명됩니다. 20세기는 19세기에 대한 답이었고, 19세기는 여러 면에서 호세아 13장 1절이다. 유럽은 세계를 뒤따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뱀의 꼬리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합리성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했고 남은 소수의 문제에 답할 예정이었습니다.

모두가 전쟁이 파괴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파괴하기에는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논평했듯이, 두 번의 세계 대전은 없었습니다. 18세의 또 다른 작물을 얻기 위해 20년의 휴식 시간을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에게로 향하여 죽었고 우리는 그 조각들을 주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7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다지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으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는 일본 야구 선수에게 7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처럼 우리 돈으로 우리 자신을 돌보기 위해 송배할 것을 만듭니다. 7억 달러. 오타니. 오타니. 응.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기 위해 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둥근 것을 잡거나, 작은 것을 때리는 것을 정말 잘하는 남자. 이제 2절과 3절을 보시고 여러분도 나와 같은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아니면 그랬다면 숙제를 하셨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으로 자기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공교롭게 만든 형상이었는데, 그것은 모두 장인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 제물을 바친다고 합니다. 그들은 송아지 우상에게 키스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 같고 사라지는 이슬 같을 것이며 타작마당에서 겨가 날리는 것 같고 창문으로 새어 나오는 연기 같을 것이다.

두 구절의 느낌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알았어, 그래, 그게 한 가지인 것 같아. 또 뭐야? 3절은 어떤 느낌 인가요? 희망이 없나요? 피하는? 구멍? 비어 있는? 죽은? 2절이 짝 찼습니다. 온갖 물건이 가득해요.

문구가 서로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안개와 이슬과 겨와 연기 등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력한 시. 강력한 시. 우리는 우리 삶을 채웠는데, 우리 삶을 채운 것은 안개와 이슬과 겨와 연기뿐이었습니다.

4절, 그러나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너희가 신을 알지 못하며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에서, 뜨거운 땅에서 너를 돌보았느니라.

이제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잘못된 대답이 있습니다. 주지 마세요.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두 구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글썄, 그는 나에게 거의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취업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 사람 없이도 꽤 잘 지낼 수 있어요. 고마워요.

우리가 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위해 그를 섬긴다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사랑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위해 섬긴다면, 오 맏소사, 내가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나에게 경건한 부모를 주셨고, 나에게 꽤 좋은 건강을 주셨고, 합리적으로 좋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맏소사, 이건 내가 아니야. 전부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분수령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축복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인가, 신인가? 그리고 제가 먹이를 주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가면 아주 쉽습니다.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만족했을 때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잊었습니다.

응, 응. 하나님께서 미국을 위해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그들에게 먹였을 때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만족했을 때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잊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에서 감사와 찬양이 동의어라는 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 전에 이것에 대해 연구를 했고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의 표현은 대부분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나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단일 개념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감사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시는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함이라.

이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손과 마음으로 한 일을 예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달성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통하여 그 일을 은혜롭게 이루셨느니라.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들은 우리 모두의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사자와 같을 것이다. 표범처럼 나는 길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새끼곰을 빼앗긴 곰처럼 엄마곰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들을 공격해서 찢어버릴 것이다. 사자처럼 나는 그들을 삼킬 것이다. 야생 동물이 그들을 찢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 단지 좌절한 폭군의 분노에 불과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일이야? 공급자에서 포식자로. 어

허.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예? 예? 좋아,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선택했고 그는 질투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어 허.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서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느니라. 정말 흥미로운 문구 아닙니까? 우리는 악인이 변영하는 것을 보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진실은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입니다. 자, 제가 특히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은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자, 우리가 오늘 저녁 이전에 말했듯이, 우리의 만족감과 충만함과 편안함에서는 우리에게는 신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원이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매우 분명한 곳으로 가십시오.

입이 오물통인 전장의 놈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그 남자가 말한 책을 읽었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나는 그 기도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겁이 나서 거기에 있었어요. 응.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부분이 바로 21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신성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를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기록된 바를 주목하십시오: 스스로 그에게 감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은 허망해졌고, 그들의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만든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죄되는 정욕대로 음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출발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들을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얼굴이 빨개진 폭군이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널 잡겠어, 죽여버릴 거야, 찢어버릴 거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폭군이 아니야. 나한테는 그러지 마. 하나님은 당신이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이 그 길을 택하도록 할게요. 나는 당신에게 그 길을 허락할 것입니다. 이제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것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성적 도착은 생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망이 발생합니다. 만약 그것이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인류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분께 감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오는 재난과 위험에 대해 강력한 시적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개인적인 의미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for-tat. 아, 그 사람도 사람이고, 상처받고, 화가 났지만, 우리에게 내리는 심판은 단순히 원인과 결과의 문제일 뿐입니다. 살도록 설계되지 않은 방식으로 생활하면 잘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확히, 정확히, 정확히. 로마서의 첫 번째 장, 특히 18장부터요. 음, 첫 번째 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훌륭한 장이지만, 특히 우리 존재의 본질을 생각하면 18절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놀랍습니다.

좋아요. 이스라엘아, 네가 나를 대적하고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므로 네가 멸망당하는도다. 그들은 틀에 어긋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것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왜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그분께 복종하는데 왜 삶이 이루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는 일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설계했는가? 좋은 삶에 대해 생각할 때,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니까? 맞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는 서로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위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신뢰, 신뢰.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웃은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덕적 완전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손이 선하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불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이 가진 것을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신뢰,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 번 용서해주세요. 여러분은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던 곳에서 시작하셨는가? 그는 그에게 영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천국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구원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떤 좋은 영적인 것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당신에게 땅 한 조각을 주고 싶고, 아기도 낳고 싶고, 명성을 주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땅에는 영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손톱 아래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기저귀를 가득 채운 아기에게는 영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평판도 포기해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그는 마귀에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당신 편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께 당신의 삶을 바치면, 그분은 아마도 당신을 켄터키주 월모어나 아프리카 중 한 곳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하십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아브라함. 내가 그걸 당신에게 주도록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했지만, 모든 천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마이클? 그가 할 것인가? 지난 25일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제안을 하신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이 일주일 전에 불에 탔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니면 차를 망가뜨렸어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 낙타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했듯이, 우리가 감히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려면 위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자유합니다. 이 마커는 죄송합니다. 나는 그래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이웃은 주말 동안 집을 비운 동안 내가 그의 물건을 훔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수익성 있는 파트너십.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파탄나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우리는 양쪽에 사자가 숨어 있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새끼를 잃은 엄마곰들. 우리는 제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시편 46편을 좋아합니다.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모두가 이 시편을 인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음은 Living Oswald 버전입니다.

긴장을 풀고 내가 신임을 발견하세요. 제임스 왕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뛰어다니지 마세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알았어 하느님, 당신이 내 삶을 누리게 할게요. 당신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오늘 밤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 맏소사, 그는 줄곧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방법. 하지만 거기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당신은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신뢰할 수 있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코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익성 있는 파트너십.

그리고 거기 있습니다. 너를 구원할 네 왕이 어디 있느냐? 네 모든 성읍의 통치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당신이 말한 사람에게 왕과 방백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진노해서 너희에게 왕을 주었다.

나는 화가 나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너의 죄악은 저장되었느니라. 그의 죄는 기록에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치 통치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일을 기대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정죄하는가? 정확히. 그들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부는 나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을 만들었을 때 저는 코로나 이후 훌륭한 강좌에 꼭 빠져 있었고 지금 헌법 제정에 관한 강좌를 보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여름 내내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정부를 가져야 합니까? 상원이 있는 이유는 연방 하에서 한 주가 하나의 투표권을 가졌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지만 로드아일랜드나 델라웨어 같은 주에서는 이를 포기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상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왕이 존재해야 한다면 그것은 끝입니다. 끝났어.

제발. 회개를 거부하면, 당신의 죄에 대한 기록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가 회개하면 그의 손에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니라.

응. 응. 아니 아니.

에브라임이 되고, 그가 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 유다와 에브라임, 남쪽과 북쪽을 놓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가리키는 암호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북왕국의 영토는 대부분 에브라임 지역으로 축소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은 더 큰 기관을 위한 시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납달리와 잇사갈과 스불론과 아셀이 모두 사라졌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정확합니다. 갓과 르우벤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 일부는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북부 전체에 시적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정확합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 그에게 임하나 그는 지혜 없는 아이로다.

아기는 '야, 난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편안하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내가 차가운 세상으로 나가길 바라나요? 잊어 버려. 때가 되어도 그 사람은 태에서 나올 감각조차 없습니다. 이제 14절에서 라틴어 용어는 해석의 교차로, 문제인 *crux Interpretum* 입니다.

내 말은 내가 이 백성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리라 함이로다.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구속할 것이다. 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나는 동정심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NIV는 무덤아, 너의 멸망이 있는 곳 사이에 공백을 두었다. 나는 동정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백은 없다. 그것은 그 구절의 마지막 진술일 뿐입니다. 뭐? 그가 말한 모든 것과 그가 다음 절에서 계속해서 말할 내용의 중간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합치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그 구절의 뒷부분을 인용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네 승리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는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 구절이 긍정적으로 읽혀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일종의 중간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나에게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시작하는 두 문장이 수사적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할 것인가? 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제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수사학적 질문을 표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암시적인 질문이라면,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의문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렇습니다. 할까? 영어와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이것을 해줄까요? 예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이것을 해줄까요? 아니오라고 대답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가 죽음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 부정적이라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꿈이다.

나는 사자입니다. 나는 표범이다. 어서, 죽음.

어서 해봐요.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리이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계속해서 만족하고 잊어버리는 죄에 빠져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 가서 호세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다른 곳에서 앞뒤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단기적으로는 파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며, 당신에게는 따끔거림이 없습니다. 무덤아, 너는 승리가 없다.

주님을 찬양. 이제 나는 바울이 여기의 원래 맥락에서 이것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 과정에서 그림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시대에 죽음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과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쏘는 것이 없습니다. 무덤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오는 곳에는 모든 것의 결론이 있으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읽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나요?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 했어? 좋은 질문입니다. 내 생각에 요점은 죄인에게 당신이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당신의 신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당신은 이 상황에서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여러분이 현재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가면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라는 경고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 설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안 돼? 왜 안 돼? 항상 그렇지는 않아. 아 안돼, 안돼, 안돼. 죄에 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응, 응, 응, 응.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동풍이 사막에서 불어올 것입니다.

그의 샘은 마르고 그의 우물 은 마르고 그의 창고는 그 모든 보물을 빼앗길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죄를 짊어져야 합니다. 이제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사람들은 모두 오랑캐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나쳤지, 그렇지? 신문을 읽어보셨나요? 텔레비전을 보셨나요? 그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땅에 던져질 것이다.

그들의 임산부는 찢어졌습니다. 정확해요, 정확해요. 우리는 1인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니다.

인간의 잔인함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것은 2천년 전과 지금으로부터 천년 후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이지만, 우리가 의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1977년 1월이었습니다. 켄터키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Karen은 세 명의 어린 아이들과 함께 North Lexington Avenue에 있는 집에 있었고, 차는 진입로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선에 서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지중해가 보였습니다.

정말 맑은 날이었습니다. 이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면 15마일 떨어진 요르단 계곡과 요르단 언덕 및 그 너머까지 볼 수 있습니다. 기온과 온도계 온도는 35도였습니다.

그리고 체감온도는 10도였습니다. 시속 35마일의 바람이 마치 냉장고에서 나오는 것처럼 차갑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아랍어로는 khamsin입니다.

그리고 완전 말랐어요. 닿는 모든 것을 건조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거기에 파카를 입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염소를 데리고 검은 옷을 입고 무릎 주위를 휘감고 있는 베두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 어딘가에 있었는데, 아마 우리가 있던 곳에서 북쪽이든 남쪽이든 1마일도 채 안 되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이드는 우리가 녹색 요르단 강을 내려다보며 15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지금 기온이 몇 도인지 아세요? 74도. 이제 그는 아브라함과 롯이 거기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그 분이 할아버지예요. 그는 가족 모두에 대한 생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롯에게 말했습니다. 그거 알아요? 우리는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중 한 사람은 여기에 머물다가 저기로 가야 할 것입니다. 어디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나는 롯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압니다.

롯은 이 늙은 염소가 내가 여기 바위와 함께 있고 너는 풀을 가져가라고 말하길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럴 가능성이 크군요. 나는 잔디를 가져갈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신이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축복.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가 스스로 잡은 풀보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돌이 더 나으니라.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아버지 를 신뢰했습니다 .

당신은 그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손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믿었지만, 십자가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이 좋은 땅에서 우리를 너무나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를 위해 일하는 하인이 백 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렸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얼마나 쉽게 말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도 우리를 당신에게로 되돌리시겠습니까? 재앙이 일어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당신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한 국가로서, 단지 더 많은 어둠이 아닌 어둠 속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신 이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에 성실하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특히 이번 성탄 절기에 그들 각자에게 당신에 대한 새로운 신뢰와 그들을 돌보시는 당신의 돌보심에 대한 새로운 확신, 그리고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